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가까이 더 가까이 살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다. 설날은 일가친척이 서로 만나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올해 설날은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서로 만나기 어려운 설날이 되었다.

하지만 부모 형제가 가까이 만나는 방법을 연구해 만나서 가까운 정을 나누어야 한다.

사람은 출생하여 혼자지만 부모 형제 부부 친구 이웃 조국이라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만남은 가까이 있을수록 한마음 한 몸처럼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한집에서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

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며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과의 삶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식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사는 것이며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시도 부모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것이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지만, 전화나 편지 메일을 통해 소식을 말과 글로 소식을 오고 가는 친구간은 가까이 사는 친구이다.

이웃에 살고 있지만 오고 감이 없고 전화 한 통화 없는 형제간은 멀리 떨어져 사는 남과 같은 것이

다. 가까이 더 가까이 사는 방법은 직접 방법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찾아가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만나는 것이며 간접 방법으로 가까이 사는 것은 선물을 보내주고 받아서 선물을 받아 애용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운 정을 느끼게 된다.

서울에 사는 아들딸들이 시골에 홀로 사는 부모에게 TV를 사주었는데 TV를 보면서 아들딸을 보는 것 같은 가깝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모처럼 고향에 와서 홀로 계신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의 만남은 너무나 그리움에 서로 견고한 반가움

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생업을 위해 부모와 헤어지는 자녀들은 간접 만남의 수단으로 필요한 것을 사서 쓰시라고 용돈을 드리면서 떠나면서 헤어짐에 눈시울을 적신다.

부모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는가? 살아 계실 때 가까이 만남의 효도를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정신적인 병은 고독이다. 이러한 고독의 병의 치료는 만남인데 만남은 자연환경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정보와의 만남이 있는데 정신적인 고독의 병에 말려들면 빨리 노화가 되고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사람과의 만남은 놀이를 하는 곳

에 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며 이러한 친구는 가까운 친구로 만들려면 남이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식정보와의 만남은 과거의 지식정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컴퓨터를 비롯한 TV 신문 등의 시사 자료를 늘 가까이 만나는 것이다.

다음은 믿음에 대한 가까운 신앙이다. 늙으면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세에 대한 준비로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신앙과 가까이 살면 나를 고독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살지만, 통신매체를 잘 이용하여 가깝게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서로 돕고 살면서 가까이 더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면 한다.

사람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한집에서 같이 살지만, 나

이가 들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남처럼 떨어져 있는데 비록 늙어서 성관계는 못 할지라도 신선처럼 한 방을 사용하면서 가까이 더 가까이 사는 원칙에 따라 서로 의지하며 정답을 나누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부부는 남 남끼리의 만남이지만, 일심동체라는 생각에서 서로 도우며 가까이 살고, 늙어 갈수록 가까이 더 가까이 살면서 일심동체로서 행복한 노년의 부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까이 더 가까이 살기 위해 내가 먼저 가까이 사는 데 노력해야 고독해지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친척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며 이웃이 생겨 삶이 따뜻하고 정다워진다.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 하는데 만남에는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사랑의 상대가 있고 실천하고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므로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하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어항속의 금붕어 삶

금붕어는 일반적으로 작은 어항이나 수조 등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고 있어 큰 바다와 강을 모르며 사는 물고기이다. 금붕어처럼 어항 속에서 허구한 날 행복에 젖어 즐겁게 살며 더 큰 고기들과의 경쟁과 약육강식을 모르면서 평화롭게만 지내고 산다. 그래서 금붕어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동일시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말을 할 때 비유 하면서 쓰기도 한다.

인간 세상도 요지경 속 허구요 미상이라 어항 속의 금붕어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것이 인간사인데 금붕어

의 수명은 보통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년 몸길이는 5cm까지 성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금붕어를 조금 더 큰 어항으로 옮기면, 금붕어의 수명은 30년 이상 몸길이는 30cm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수명과 몸길이는 무려 2배에서 4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혹시 당신이 속한 공간이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 아닐까?

반면 어항은 고통의 여지를 남기는 자유 구조의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삶이요, 건강한 삶인데, 어항 속의 금붕어는 삶의 실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연 속에는 위험과 불안이 있으므로 생존하기 위한 본능도 치열한 반면 어항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되기에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 활력 또한 사라지게 되고 안이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안주한 삶 보다는 지금의 좁은 세계관을 버리고 더 시야를 넓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처지만 비판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기 위한 안목을 가져야하며 배우고자 하는 자세부터 마음가짐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님을 항상 명심하고 배우려 하는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공동체 생활은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만 해서 운영되지는 않고 다수의 견에 동조 할 때 지혜로운 해결책이 만들어진다. 어항속의 금붕어의 편안한 삶보단 현실이 척박한 혼자만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해도 각자 개성이 공동체의 구성임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일원임을 잊지 말고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국종균/광주서부소방서현장지휘담당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